

▶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26일부터 29일까지

# 전통공연·전시 통합... 문화재 축제로선 국내 최대규모

전통공연에 전시와 예능 공연을 한 자리에 모은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26~29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일반인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능·예능·체험·학술 분야로 기획  
전주비빔밥축제와 연계도 '시선 집중'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온 전통공연과 전시를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무형문화재 축제로, 일반인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간 무형문화재 행사는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들을 통합하는 행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분야 전문가나 관계자 외에 일반인은 자연스레 관심 있는 분야만 접하는 행사에 머물렀다.

실제로 일부 무형문화재는 대중의 무관심과 전승자 부족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선조가 물려준 무형유산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현 세대의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번 행사의 주제인 '대대손손(代代孫孫)'에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녹아있으며, 크게 기능·예능·체험·학술 분야로 기획되어 관객들과 만난다.

기능 분야는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전승 과정을 보여주는 '주제관'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장인과 디자이너와의 협업 작품 등을 총 다섯 개의 전시 공간



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예능 분야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재 등 총 다섯 개 분야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크리에이터 남궁연이 이번 행사의 공연감독을 맡아 기획한 '이수자 합동공연: 시간의 단면'은 전통 연희와 풍물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분야에선 평소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웠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인의 작품 제작 과정을 현장에서 선보이는 공개 행사를 비롯해 전통 공예와 예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현재 이수자 합동공연과 전통공예 체험은 사전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를 통해서

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행사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비빔밥'을 주제로 한 2017 전주비빔밥축제와의 연계도 시선을 끈다. '2017 전주비빔밥축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는데, 두 축제의 주최 측은 양 행사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양 쪽을 모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해은 기자

오늘 '행복한 이웃, 통일영화제' 개최

전주YWCA(회장 최명희)는 통일부 위탁사업인 전북하나센터 주관으로 '2017행복한 이웃 다정다감 프로젝트 통일영화제'를 26일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영화제는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기념식은 이명자 전북하나센터장의 개회선언과 최명희 전주YWCA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영배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의 영화에 대한 작품소개로 진행된다.

상영작은 '살때와 아버지와의 딸'의 3편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 중 살때는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중편부문 금상과 제25회 에리조나 국제영화제 최우수국영화상을 수상한 영화이다.

살때는 서울 대림동 별집촌에서 한 방을 시간제로 나눠 쓰는 남한여성과 탈북남성의 공감을 통해 남북주민 간 이해와 소통을 그린 영화로, 남북한의 점진적 화해 과정을 비유적으로 담았다. /정해은 기자

고은합창단 기획공연, 28일 동국사에서

고은합창단이 오는 28일 동국사 입구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가을엔 편지글 하겠어요' 기획공연을 연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휘자에 조시민씨, 반주자에 김혜린씨, 독창자에 소프라노 이지혜씨가 참여하고, 무대에서 혼성합창, 독창, 남성합창, 편지낭송, 여성합창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소프라노 이지혜씨가 독창 무대에서 '오 나의 감미로운 사랑'을 열창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은합창단은 대문호인 고은 시인의 문학적 성취를 합창음악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노래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혼성합창단이다. /권산=김판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이 사람 - 서양화가 권찬희

## “화폭에 자연 담아내는 것 마치 행복한 여행과 같아”

“자연은 작품의 영감을 얻은 공간”  
내달 2일부터  
군산시 8번째 개인전

과 통찰,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다는 화단의 평가를 받고 있다.

30년 가까이 전업주부와 작가는 1인 2역을 다해온 권작가. 그는 그동안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열정을 쏟았다.

“자연은 작품의 영감을 얻은 공간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변화를 맞보는 황홀함을 붓과 물감, 기타 도구, 나의 감정 느낌을 맡겨 화폭에 담아낼 수 있는 내게는 또 다른 여정이었답니다.”

특히 한때 건강문제로 고생했던 배우자와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서로를 위로해준 힘든 작품 활동에서 비롯됐다.

권작가는 원광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두 차례의 특선과 입선 등 수차례에 걸쳐 수상했다.

(사)한국미술협회, 전북여성미술협회, 전북수채화, 노령회 회원인 권작가는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와 벚꽃 미술대전 초대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화가이자 문학박사인 이승 이일정 전 교수가 권작가의 작품 중 '수수'를 보고 시를 썼었다 한다. /권산=김판관 기자



“일상에서 자연을 벗 삼아 화폭에 구상들을 담아내는 일은 행복한 여행과 같습니다.”

서양화가 권찬희(54) 작가는 군산에서 모처럼 여덟 번째 개인전을 열어 지역화단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웃 익산에서 자라 대부분을 생활해온 권작가는 남편의 제2의 고향인 군산(군산제일고 졸업생)을 사랑해 몇 차례에 작품전을 열었고 다양한 작품의 모우멘텀을 얻은 곳이기도 하다.

이번 작품전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여행 스토리'(여정)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게다가 이번 행사는 한국미술협회 전북지회 및 자부가 후원하는 '2017 군산아트페어 & 핸드메이드페어'에 초대돼 특별한 작품전이기도 하다.

그는 소박한 여행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연과 교감을 하며 친근한 소재들을 스케치함으로써 작품들을 담아냈다. 또한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애착

호남오페라단 '달하, 비취시오라', 내달 3일 소리문화전당·8일 정읍사에서 무대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달이 높이 비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는 '정읍사'. 이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이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요 중 가장 오래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호남오페라단(이사장 김동수·단장 조장남)은 '정읍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창작오페라 '달하, 비취시오라'를 31주년 기념작으로 내달 선보인다.

'달하, 비취시오라'는 행복을 알 수 없는 남편을 속절없이 기다리는 애절한 노랫말에 상상력을 덧입혀 각색했다. 사비성의 공주 월아와 석공 도립은 전란 중에 운명적으로 만나 사랑을 키운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정읍지역 호족 해장의 방해와 나당전쟁으로 말미암아 앗갈리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작품은 11월 3일 오후 7시와 4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8일 오후 7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정해은 기자

**추 창 간**

**열린의회 알찬의정 제7대 순창군의의회**

**제 7대 순창군의의회 운영 방침**

-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있는 의회
- ▶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
- ▶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 ▶ 미래를 내다보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순창군의의회는 15만 내외 군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 바랍니다.  
(문의 : 650-1043)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정천로 33  
<http://www.sunchangcouncil.go.kr>